

“권력에 종속... 배불론에 대응 못해”

박영제 서울시립대 교수, ‘고려시대 정치권력과 불교’ 세미나

“권력의 독립, 종교의 쇄신을 부르짖은 결사는 결국 정치권력화 될 수밖에 없었다. 불교계를 결사가 주도하는 순간이 바로 정치권력의 유혹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결국 결사가 정치권력화하며 불교계는 내부적으로 이미 배불론에 대응할 힘을 잃었다.”

신앙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실천의 제시, 정치권력의 접근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두기, 기존 불교교단으로부터의 독립, 재가 신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후원 등이 두 결사의 특징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항몽전쟁 과정에서 수선사(정혜결사)가 불교계를 주도하는 사원으로 부상했고, 백련사도 최씨 무신정권과 밀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신정권이 붕괴되며 친원불교화가 진행됐으며 변실과 쇠퇴의 길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며 제기된 결사의 정치권력화를 고찰한 발표가 눈길을 끈다. 박영제 서울시립대 교수는 불교사회연구소(소장·법안 스님)가 7월 2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고려시대의 국가와 불교·고려시대의 정치권력과 불교’에서 결사가 결국 정치권력화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조망했다.

고려 결사의 무신정권 관계 고찰 “정권 몰락 후 불교 쇠퇴 불러와”

박 교수는 ‘결사불교와 정치권력’에서 “결사 규모가 확대되며 사세의 유지를 위해 결사 초기의 정치권력과의 소원한 관계는 지속되지 못했다”며 “이는 결사 또한 국가의 승정체제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지눌 스님 이후 해심과 몽여 스님 당시 수선사는 결사이념과 중앙 정치권력과의 균형이 이뤄지며 결사이념이 계승됐지만 또 권력에 종속될 위험도 상존했다. 진명국사 혼원 스님이 최이에 의해 정혜사 주지와 선원사 법주가 된다.

박 교수는 대표적인 사례로 정혜결사와 백련결사를 들었다. 먼저 박 교수는 “정혜결사와 백련결사는 통시대적으로 존재했던 여타의 결사불교와는 성격이나 영향력의 면에서 사뭇 달랐다. 당대 불교계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비판, 불교사상과

박 교수는 “혼원 스님이 최이의 영향력 아래 수선사 사주가 됐는데 이어서 선원사 법주가 된 것은 최이가 선원사를 통해



불교사회연구소가 7월 2일 개최한 ‘고려시대 정치권력과 불교’에서는 결사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선사를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두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로 인해 수선사는 최씨 무신정권에 종속될 정권유지에 직접적으로 포섭된다.

박 교수는 이어 “백련결사 또한 요새 스님 이후 최씨정권과 밀착됐으며 그 정권이 몰락하자 불교계에서 더 이상 결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고려말 성리학 측의 정치운동 성격의 거친 배불론에도 전혀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결사불교는 초기의 성격과 달리 대중과 유리되고 결국 불교계 모순에 대해 비판적 대안을 제시할 능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교수는 끝으로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태어난 결사로 인해 정혜결사와 백련결사가 실패한 결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강호선 성신여대 교수는 “왕실 불교의례의 정치적 의미”를 통해 고려시대 불교의례가 국가정책 하에 발전한 것은 불교가 정치적인 효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동일한 불교의례가 선행되지 않았다. 필요에 의해 새로운 의례가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의례는 집단 선행되는 과정에서 대인 동원력을 지니고 이를 통해 민심을 규합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왕실의 권위를 백성에게 과시하는 기회”였으며 “연등회와 팔관회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신미스님 <선종영가집> 서울문화재로

조선 전기 한글 연구 중요자료... 세조가 직접 헌토

한글창제의 주역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신미스님의 한글언해집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새롭게 지정됐다.

서울시는 6월 18일 <선종영가집 언해>를 비롯해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 1>과, <묘법연화경 권 1~3> 등 3권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문화재는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목판 인쇄술과 초기 한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꼽히는 것들이다.

특히 <선종영가집 언해>는 당나라 때 현각선사가 저술한 수행하는 10가지 방법을 우리 글로 번역한 조선 초기 목판본 책으로 세조가 토를 달고 신미스님이 한글로 번역했다.

신미 스님은 세종의 한글창제에도 도움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최근 연구되고 있다. 여기서는 세종의 뒤를 이은 세조의 현토에 신미스님이 한글번역을 해 조선전기 한글 변천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선종영가집 언해>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글자와 말을 그대로 담고 있다. 세조 때 설치한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간경도감본의 특징도 그대로 보여준다.

이와 함께 서울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감지금니묘법연화경>은 김부흥 종이(갑지)로 된 표지에 금가루를 사용해 <묘법연화경권제일>이라 쓴 고려시대 목판 불경이다.

묘법연화경은 국내의 다양하게 산재해 있지만 이 경은 부처님이 설법하는 그림



신미 스님의 <선종영가집>

인 변상도를 포함하고 있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본이라는 점에서 이번엔 문화재로 지정됐다.

<묘법연화경 권1~3>은 보물 제1153호와 동일한 판본으로 현존하는 권책 수도 동일한 15세기에 새겨진 목판 불경이다. 일부 결락된 부분이 있지만 전해오는 책 가운데 이번 지정되는 책의 판본이 극히 드물어 문화재로 지정됐다. 이들 3권은 소유자로부터 유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받아 사전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29일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심의에서 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은 유물들이다.

노덕현 기자

신라 최초 조각가 양지 스님은 동남아인?

강희정 서강대 교수, 작품 분석해 출신지 유추

신라 최초의 조각승으로 평가받는 양지 스님의 출신을 둘러싼 학계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양지(良志) 스님’은 <삼국유사>에도 수차례 걸쳐 등장하는 선덕여왕 시기 활동한 조각승이다. 역사서에 이름과 행적을 남긴 예는 우륵, 설거 등과 함께 손에 꼽을 정도다.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데 기반해 논지를 전개했다. 양지 스님의 활동 시기로 나오는 선덕왕 치세(632~646년)의 서역과 당나라 정세는 왕래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불안정했으며 당시 토번(티베트), 위구르 등 서역 이민족과 큰 싸움을 거듭한 혼란기여서 안정적으로 교류할 여건이 아니었다는 분석이다.

이런 양지 스님의 출신이 동남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희정 서강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최근 발표한 <양지의 남방도래인가 가능성에 대하여> 논문에서 양지 스님이 인도, 동남아 출신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에서 인도로 간 구법승려들도 7세기 해로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기록들이 전해지는 만큼 양지 스님의 새로운 조각 트렌드도 인도-동남아-중국남방 해로를 거쳐 유입됐을 개연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그동안 양지 스님의 출신지에 대해서 학계는 논쟁을 벌여왔다. 90년대 경주 사천왕사지와 석장사지에서 양지 스님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조소불상, 신장상 조각들이 잇따라 발굴되며 서역풍 묘사기법에 주목해 그가 서역에서 당을 거쳐 왔거나 백제계 장인일 것이라는 등의 설들을 제기해왔다. 강 교수는 기존 서역도래설이 당대 시대

제작기법에서도 사천왕사지 출토 신장상과 석장사지 출토 전불 등 양지의 추정작들은 고운 흙을 빚어 틀로 찍어내면서 만들었다. 이런 제작법은 인도에서 기원해 중앙아시아, 동남아, 중국으로 전해진 것들이다. 강 교수는 “양지 스님의 작품이 서역풍으로만 고정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2009년 사천왕사 특별전에 출품된 양지 스님의 녹유신장상. 전탑박물관 ‘탐상전’이다.

강 교수는 “양지 스님의 작업을 돕기 위해 중생들이 염불, 보시 대신 흙을 나르는 공력을 쌓은 것도 실천 공덕을 강조한 인도,

동남아의 초기 남전불교의 성격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강 교수는 양지 스님이 제작한 불탑·불상이 새겨진 전탑 벽돌인 탐상전에 주목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의 불교 유적에서는 탑과 불상을 새겨 공덕을 표현한 ‘봉헌판’ 유물들이 종종 출토된다. 벽돌에 탑과 상을 같이 표현한 것은 형식은 달라도 인도 불교성지에서 출토되는 봉헌판 유물에 정형화되는 요소들이란 것이다. 강 교수는 “‘모든 게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소멸한다’는 연기법의 내용을 탑과 불상 사이 새긴 석장사 탐상전의 구성 등도 동남아의 봉헌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지 스님은 석장사, 영묘사, 사천왕사 등의 불상과 신장상, 전불 등을 만들었다. 특히 양지 스님의 작품들은 빼어난 사실적 묘사와 조형기법으로 신라의 미술 수준을 한 단계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양지 스님이 배주머니 매단 지팡이만으로 백성들 집을 떠돌며 공양상을 거르고, 영묘사 장유존상을 만들며 신도들이 불상에 쓸 흙을 가져다주며 ‘오라... 공덕담으라’는 ‘풍요’를 불렀다는 일화가 등장한다. 아직 생몰년은 물론, 고향과 신분 등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i.com

삼국유사 목판사업 본격 추진된다

<삼국유사>를 목판화하는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최근 전국 공개모집을 통해 삼국유사 목판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각수 8명을 최종 선발했다. 조선 중기 판본은 5개월간의 판각과정을 거쳐 올해 11월, 조선 초기 판본은 2016년, 경북도 교정본은 2017년에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경상북도는 올해 발표되는 유교책판 64,226장의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추진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국보 제306호 삼국유사의 저자, 보각국사 일연선사는 1206년 경북 경산에서 태어나 포항-청도-달성-경주 등지를 거쳐 군위 인각사에서 삼국유사를 집필하고 1289년 인각사에서 입적했다.

삼국유사 목판사업은 경북도와 군위군이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주관한다. 현존 삼국유사 판본을 모델로 2017년까지 조선 중기 판본과 조선 초기 판본, 그리고 이를 집대성한 경북도 교정본을 각각 1세트씩 판각해 전통 방식으로 인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삼국유사 완역본을 펴낸 최광식 고려대 교수는 “몽고 침입 후 황릉사와 대장군이 소실된 국한의 상황에서 일연선사가 민족 문화유산을 남겨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삼국유사’를 저술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삼국유사의 가치를 평가했다.

인출된 책지는 대학, 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보급해 삼국유사의 이해와 고대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판각된 3개의 목판 세트는 경북신도청과 군위군, 한국국학진흥원에 각각 보관돼 일반에 공개된다.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8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 (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오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5년 7월 中

◆개강일시 : 2015년 7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7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단, 98만원에 법당의 앰프 + 대출력 스피커 + 구즈넥 탁상 마이크 등 최고급 신형 장비로 교체해 드립니다.

■ 기간 : 선착순 30개 사찰

■ 신청방법 : 계약금 30% 입금 후 휴대전화로 희망일자 및 주소, 사찰명을 정확히 문자로 보내주시며 예약 순서대로 설치 일자 및 방문 시간은 스님과 협의해 결정 합니다.

● yk-308 표준 범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 범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대출력 믹싱앰프

● 범당전용 스피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